



사과배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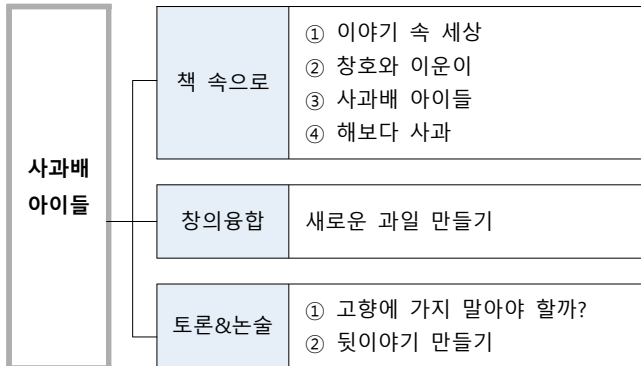
- * 글: 리혜선 * 그림: 이영경
- * 출판사: 웅진주니어 * 정가: 9,000원
- * 분량: 68쪽 * 대상: 초등 4학년

· 책 소개

『사과배 아이들』에서 저자 리혜선은 조선족 이주 역사 백여 년을 상징하는 과일인 사과배와 다섯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같은 민족'의 숨소리를 담아냈습니다. 1908년 가을, 일제의 침탈로 국운이 기울어지던 시기, 함경북도 한 시골에 살고 있는 창호네는 백두산 너머 청국으로 옮겨가 내두산이라는 마을에 정착합니다. 그곳에서 막내동생 창선이 풍토병을 앓기 시작하자 이웃집 이운이는 엄마가 소중히 간직하는 사과를 한 알씩 꺼내줍니다. 창호는 창선이 먹은 마지막 사과 씨를 심고 사과나무를 키워낼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과연 창호와 아이들은 만주의 척박한 땅에서 사과나무를 키울 수 있을까요?

- * 조선족 : 중국에 사는 우리 겨레
- * 풍토병 : 어떤 지역의 특수한 기후나 토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

· 주요 독후활동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사과배 아이들』의 제목과 앞표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기>를 참고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질문으로 만들어보세요.

<보기>	표지에 있는 다섯 명의 아이들은 모두 가족일까?
질문 1	
질문 2	
질문 3	

2. 『사과배 아이들』의 뒤표지에 쓰여 있는 글을 읽고, 작품의 분위기가 어떤 것 같은지 짐작해보세요.

⇨

3. 앞표지에 붙어 있는 책날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습니다. 글을 읽고, 밑줄 친 물음에 대한 답을 예상해보세요.





‘사과배’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는 사과배를 만들어 낸 다섯 아이들,
 창호, 이운이, 영호, 범두, 창선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왜 세상에 없었던 사과배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백 년쯤 전 중국으로 건너가, 세상에 없었던 사과배를 만들어 낸
 다섯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사과처럼 달고 배처럼 시원한 사과배와 함께
 아이들의 눈물과 희망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

 독서 중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중심 사건을 간추리면서 읽기

※ 다음은 『사과배 아이들』의 주요장면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림을 따라 중심 사건을 간추려 정리해보세요.

중심 사건	사건 간추리기
	①
	↓
	②
	↓
	③
	↓
	④

 독서 후 책 속으로 ① 이야기 속 세상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지막한 골짜기에 아담한 마을이 그림처럼 아스라이 보이고, 주변을 둥그렇게 둘러싼 산등성이는 온통 울긋불긋 가을에 물들어 있다. 하지만 마을은 어딘가 수심에 잠긴 듯했다. ㉠일제가 검은 손을 뻗쳐 오는 때여서, 조선은 팔도강산 그 어디나 나라를 잃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젖어 있었다.

(나) “……청국으로 가면 살 길이 나아진다고들 하는데……”

아버지의 나지막한 말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벼락같이 터져나온다.

“이 불효막심한 놈아, 선산을 어찌 버리며, 이 땅을 어찌 등진단 말이냐…….”

할아버지는 노하여 요란스레 기침을 했다.

“아버지, 더는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남의 땅에 가서라도 자식들은 살려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가 할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높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창호는 두려워 온몸을 떨었다.

(다) 소를 몰고 산을 내려오며 이운이가 종알거렸다.

“나 소 모는 거 제일 싫어! 아버지만 계셨어도 소몰이는 안 한댔어. 엄마는 어렸을 때 규방에서 바느질하고 자수하고 시를 지으셨대.”

‘청국이란 어떤 곳일까?’

창호는 또 청국을 생각했다. 할아버지가 몹시 화를 내는 것을 보아 ‘청국’이란 썩 좋은 곳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맥이 빠졌다.

1. 글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가)~(나)의 밑줄 친 ㉠과 ㉡의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	
㉡	

2. (다)의 밑줄 친 ㉢의 ‘맥이 빠지다’는 어떤 상태인가요?

⇒



독서 후 책 속으로 ② 창호와 이운이

※ 다음 글을 읽고, 창호와 이운이의 성격을 파악하여 정리해보세요.

(가) 선심을 쓰기 좋아하는 이운이가 ‘사과누나’로 되었다. 이운이의 집에는 커다란 사과 나무가 있다. 이운이가 사과를 주겠다고 해서 창선이의 생일파티가 이 아름다운 숲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이운이는 나무죽한 얼굴에 예쁘게 생긴 커다란 쌍꺼눈을 가지고 있었다. 전주 이씨 양반 집 딸이었던 엄마가 있어서 들은 이야기가 많은데다가, 천성적으로 쾌활한 이야기꾼이다. 알뜰한 입술을 나풀거리며 재미있는 이야기와 소꿉놀이를 곧잘 꾸미곤 했다. 집안 일 때문에 뒤숭숭하고 두려웠던 창호지만 수다쟁이 이운이를 보자 금방 즐거워졌다.

(나) “이건 사과요, 이건 국수와 쌀, 송편, 경단, 무지개떡이니라.”

“아, 떡! 참 맛있겠는데!”

아이들은 갖가지 맛있는 떡을 상상하자 눈길이 황홀해졌다.

(다) 이운이는 어른들을 거두고 있는 창호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창호도 몹시 당황했다. 이운이의 손을 잡고 부랴부랴 산을 내려왔다. 창호는 이운이의 엄마 앞에 풍덩 무릎을 꿇었다. 이운이는 눈물만 푹푹 흘리고 창호가 사연을 말했다.

“……정말이에요. 이운이 잘못은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 창호는 청인 포수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백두산의 동쪽 기슭을 따라 걸었다. 눈보라가 뺨을 쳤지만 창호는 추운 줄도 몰랐다. 마침내 마을이 안겨왔다.

(마) 창호는 청인 포수가 주는 노루고기를 덩석 잡아 정신없이 먹었다. 그제야 여기저기 아파서 살피보니 얼굴은 붉어 피가 났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포수가 누렁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골짜기에 떨어진 창호를 구해 준 것이다.

창호의 성격

이운이의 성격



독서 후 책 속으로 ③ 사과배 아이들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이운이는 얼굴빛이 새침해졌다. 이운이도 먼 곳으로 가고 싶었다. 어딘가 먼 곳에는 배고픈 일도 없는 참으로 행복한 곳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창호 네가 자기네를 두고 어디론가 간다는 것도 견딜 수 없었다.

“청국은 어떤 곳이지?”

“몰라, 저-쪽, 북쪽이래. 할아버지가 굉장히 화내고 있어.”

“북쪽은 해님이 없는 곳이지! 해는 언제나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돌아 서쪽으로 가거든. 청국, 해 없는 곳에는 시퍼런 구렁이가 득실거린대. 우리 엄마, 그런 곳 안 간댔어.”

“구렁이?”

창선이가 깜짝 놀라 창호 곁에 바짝 다가섰다.

“이만큼, 길구, 이만큼 굵구, 시-퍼런 구렁이 말이야.

(나) 이운이는 엄마가 사과 다섯 알을 움에 감추어 둔 일을 알고 있었다. 그 때는 집집마다 고향에서 가져온 식량이 떨어져서 멀건 죽물과 풀뿌리로 겨우 살아가고 있었다. 엄마는 무슨 까닭인지 그 사과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

(다) “어머! 하늘만큼 멀 텐데! 귀신이 있을지도 몰라!” 이운이가 기겁을 했다.

“누렁이가 있으니 겁나지 않아. 길잡이를 해 줄 테니까.” 둘은 한참 동안 속닥거렸다.

그러고서 마을이 발각 뒤집힐 즈음 창호는 벌써 마을을 멀리 뒤에 떨구고 있었다.

1. (가)에서 이운이가 창호에게 청국은 해도 없고 구렁이가 산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2. (나)에서 엄마가 사과를 감추어 두고 이운이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다)에서 마을이 발각 뒤집힐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독서 후 책 속으로 ④ 해보다 사과

※ 다음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해봅시다.

(가) “이운이는 거짓말쟁이야. 이곳에도 해가 있는걸.”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며 창호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해는 없어두 돼. 사과나무만은 있었으면 좋겠어. 그치 창선아?”

(나) 창선이의 입 안에서 가득 부서져내리는 사과 소리를 듣자 아이들은 일제히 새콤한 침을 꿀꺽 넘겼다.

(다) 이때 갑자기 창호가 달려들어 범두의 손에 든 것을 빼앗아 갔다. 너무 뜻밖이고 조금 심하기까지 해서 범두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창호는 손에 썬 씨를 높이 들고 소리를 질렀다.
“애들아, 사과를 심자!”
“와-, 신난다!”
아이들은 환성을 질렀다.
창호는 머리를 힘껏 쥐어박았다.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라) 그러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말소리를 듣자 문득 정신이 들었다.
'아이들은 저렇게 꿈이 많은데 난 왜 이려고 있지? 앞날도 많지 않은데 기운을 내자. 아이들이 이 땅에서 성공을 하도록 학문을 가르쳐야지.'
할아버지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다. 이튿날부터 창호네 움막집에서는 다시 낭랑한 글 소리가 울려 나오기 시작했다. 어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더욱 기운차게 파종을 했다.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윗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낮설고 척박한 남의 땅에서 를 심고 를 열리게 만드는 일은

고향을 떠올리게 만드는 일이면서 동시에 다섯 아이들의 간절한 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 덕분에 어른들도 기운을 되찾고 새로운 을 가지게 되었다.



독서 후 창의융합_ 새로운 과일 만들기

※ 다음은 책의 맨 뒤쪽에 나오는 '사과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글을 읽고, 여러분도 사과배처럼 두 가지 이상의 과일을 합하여 새로운 과일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사과배를 먹어 본 적이 있나요? 참 새콤달콤하고 맛있답니다.
가을이 노랗게 물든 9월이면 중국 연변은 사과배 향기로 가득 넘친답니다. 사과배는 그 모습이 나무에서는 붉은 사과 같고 겨울에 움에 저장하면 노란 배와 같답니다. 사과배가 맛있다는 소문은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파다히 퍼져 나갔답니다. 사과가 자랄 수 없는 이곳의 사람들은 너도 나도 창호에게서 묘목을 얻어다가 사과배 나무를 가꾸었어요. 산마다 골마다 사과배 나무가 가득 자랐답니다. 그 후 용정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과배 과수원이 생겨났답니다.

번호	선택한 과일	새로운 과일 이름	특징
예시	사과, 배	사과배	사과처럼 빨갛고 저장 후에 노란 배와 같다. 사과처럼 달고 배처럼 시원한 맛이 난다.
1			
2			
3			



독서 후 토론&논술 ① 고향에 가지 말아야 할까?

※ 다음은 『사과배 아이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글을 읽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토론하고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범두가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어른들은 일제히 눈시울을 적시며 한숨을 내쉬었다.

창선이는 더는 고향으로 갈 수 없게 되었다. 엄마는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다.

“아버지, 고향에 다녀오겠습니다. 사과도 가져오고, 과일 접지도 가져오겠어요! 꼭 사과 나무를 키워내고 말겠어요!”

아버지는 슬픈 기색으로 머리를 저었다.

“넌 경주 최씨 8대 장손이야. 지금 할아버지가 편찮으시고 창선이는 병이 악화되고 있단다. 혹 너까지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우린 살 수가 없는 거다. 단념하는 게 좋아.”

아버지는 이렇게 잘라 놓고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했다.

주제 : 고향에 가지 말라는 아버지 말씀을 따를 것인가?

창선이를 위해 고향으로 간다.

왜냐하면,

아버지 말씀대로 단념한다.

왜냐하면,



독서 후 토론&논술 ② 뒷이야기 만들기

※ 다음은 『사과배 아이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상상하여 이야기를 완성해 보세요.

차차 창호의 눈이 이상한 빛을 뽀기 시작했다. 저 나무에 백두산 너머 고향의 과일 접지를 접목한다……, 이곳 기후에 맞게 풍토 순화하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새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다……, 사과같이 예쁘고 달고, 배같이 물이 많고 시원하고……, 이 산에도 저 산에도, 저기 저 산에도 가득 과수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과일의 이름은 사과……배, 아아, 사과배!

이운이도 영호도 범두도 돌배나무를 쳐다보았다.

네 쌍의 눈길은 오래오래 황홀해졌다…….

제목 :

Blank writing area for the story completion activity.